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장	황윤주	460-5020
홍보협력팀장	김은정	460-5051
홍보협력팀 책임	오정민	460-5052
관련누리집 (메뉴)	50plu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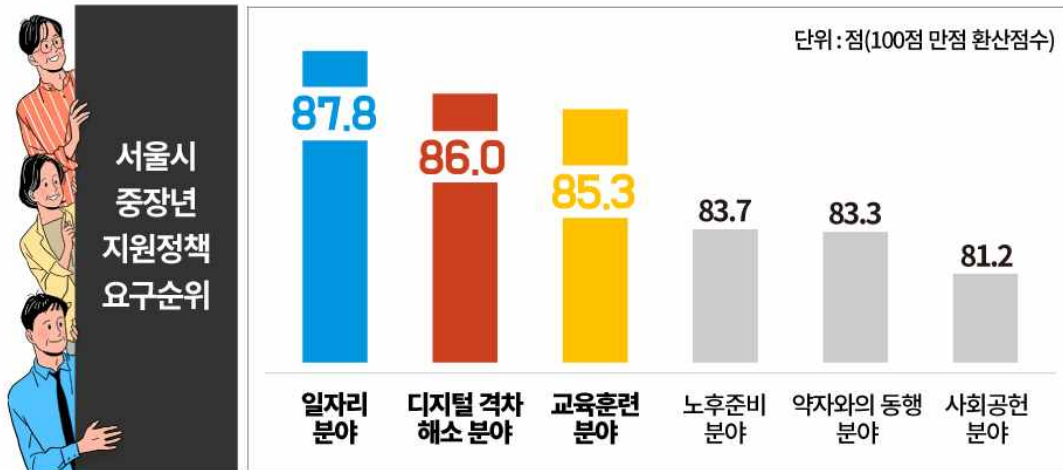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 5쪽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1위는 일자리'

- 지난해 서울시 4060세대 5,266명 대상 중장년 지원정책 요구조사 실시, 결과 발표
- '일자리 분야' 지원정책 필요성 가장 높아, 50대 이후 디지털 격차 해소 요구 높아져
- 이용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정책 요구 높아, 주된 일자리 퇴직 등 생애주기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의 수립을 위해 중장년 서울시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 지난 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 등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를 수행했다.
- 서울시 중장년이 원하는 정책은 '일자리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중장년을 40대·50대·60대 초반과 후반 등 총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집단에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일자리 분야’에 대한 요구가 87.8점(100점 만점 환산점수)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노후준비 분야’, ‘약자와의 동행’, ‘사회공헌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서울시 중장년 지원 정책 요구 우선순위

-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넘어가며 지원정책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졌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는 40대에서는 낮은 순위에서 머물다가 50대 이후 급격하게 높아졌다.
 - 40대는 노후준비가 교육 훈련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비해 우선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 초반 이후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교육훈련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급격히 달라지는데, 이는 40대 후반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퇴직을 마주하는 중장년의 현실과 정책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즉, 평균적으로 49세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는¹⁾ 중장년 대다수가 축적한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향 취업을 하는 상황에서²⁾ 디지털역량 향상과 교육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더 오래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 49.3세

2) 한국고용정보원. (2022).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 고용동향브리프 2022년 6호.

풀이할 수 있다.

<표1> 서울시 연령별 중장년 정책 요구조사 결과 종합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전 체		일자리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노후준비 분야	약자와의 동행	사회공헌 분야
40대 초반	요구 일치	일자리 분야	약자와의 동행	노후준비 분야	교육훈련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사회공헌 분야
40대 후반		일자리 분야	약자와의 동행	노후준비 분야	교육훈련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사회공헌 분야
50대 초반		일자리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노후준비 분야	약자와의 동행	사회공헌 분야
50대 후반	요구 일치	일자리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노후준비 분야	사회공헌 분야	약자와의 동행
60대 초반		일자리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노후준비 분야	사회공헌 분야	약자와의 동행
60대 후반		일자리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사회공헌 분야	노후준비 분야	약자와의 동행

* 40대 초반(만40세~만44세) / 40대 후반(만45세~만49세) / 50대 초반(만50세~만54세) / 50대 후반(만55세~만59세) / 60대 초반(만60세~만64세) / 60대 후반(만65세~만69세)

**설문조사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한 결과임.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혜택이 있는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 중장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시설 확충 등 구체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표 2>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세부 정책 요구별 우선순위 요약

우선순위 상위			구 분
정책 요구	점수	분야	
중장년 공공일자리 확대	85.61	일자리	1순위
중장년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85.46	일자리	2순위
노후준비를 위한 일과 활동 연계 서비스 강화	85.41	노후 준비	3순위
중장년 상담-교육-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강화	85.04	일자리	4순위
중장년 대상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	84.94	디지털 격차 해소	5순위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방지 지원	84.71	약자와의 동행	6순위
근거리 평생교육시설 확충(동네배움터, 평생학습센터 등)	84.29	교육 훈련	7순위
평일 저녁,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84.03	교육 훈련	8순위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실습, 체험공간 등의 시설 구축 운영	84.00	디지털 격차 해소	9순위
유급 사회공헌/자원봉사 지원확대	83.17	사회 공헌	10순위

*분야별 세부 정책 요구에 대한 문항에 서울 시민들이 응답한 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필요하다=100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0점을 기준으로 응답을 환산하여 순위를 선정함

- 이번 조사를 통해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개인별로 가장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시기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 가장 요구가 높은 일자리 분야의 경우, 개인의 일자리 주기를 고려한 지원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정책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40대와 50대 초반, 그리고 50대 중후반과 60대가 원하는 정책지원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며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중장년 정책지원 요구조사 결과 보고서는 50+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